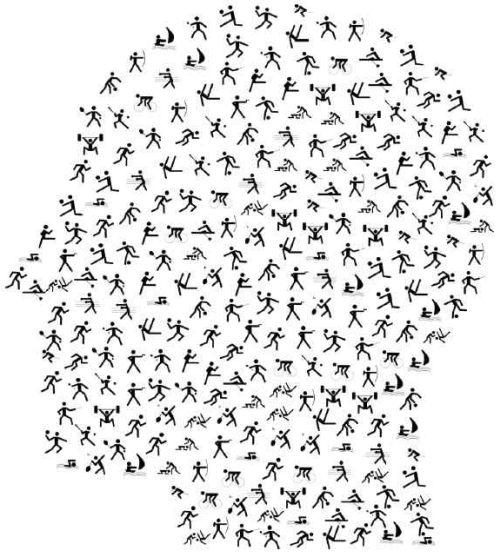


(2021. 12. 13. 월) 운동은 공부 아닌가요? (한겨레)



픽사베이

미국 연수 때의 일이다.

영어 공부를 도와주던 제임스는 노스캐롤라이나대학(UNC)에 갓 입학한 새내기 학생이었다.

제임스에게 고교 시절 스포츠 활동이 어땠는지 물은 적이 있다.

제임스는 의무적으로 스포츠 종목 중 하나를 골라 1년 내내 수업을 들어야 했고 자신은 산악자전거를 배웠다고 했다.

그가 택할 수 있는 종목은 야구부터 축구, 미식축구, 라크로스 등 종목이 다양했다고도 덧붙였다.

요즘 들어 제임스의 얘기가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것은 교육부가 학생선수 대회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문화체육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회와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현재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에서 내년 초등학교는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2023년부터는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학생선수도 대회 참가나 훈련을 위해 단 하루도 학교를 빠질 수 없다.

이에 대한체육회와 산하 68개 경기단체연합회 등 체육단체들은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선수는 학생인가, 선수인가라는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2016년 최순실 사태로 말미암은 정유라(승마) 건이 터지면서 체육 특기생에 대해 더 안 좋은 시선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도박, 폭력, 음주운전 등 스포츠 선수들의 도덕성, 인성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르자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라는 인식 또한 팽배해졌다.

선수이기에 앞서 학생이기에 학습권을 보장(이라 쓰고 강제하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현장에서는 학습권과 함께 운동권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한 고교 야구부 감독은 “일정 훈련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면 팀당 선수 수를 30~40명으로 봤을 때 개인 평균 훈련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부족한 훈련량을 메우기 위해 선수들은 사설 레슨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선수들도 일반 학생들처럼 꿈과 희망을 갖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인데 체육 특기생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일갈했다.

학교 내 훈련 시간이 턱없이 줄어들면서 야구를 비롯한 단체 종목은 사설 학원 붐이 일었고 야구의 경우 한 달 최소 200만원 이상의 레슨비를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선수 학부모들도 불만이 쌓이기는 마찬가지다.

중학교 3학년 야구 선수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주 중에 수업을 전부 들으면 주말에는 운동에만 매달려야 한다. 학생선수는 쉴 시간이 전혀 없어진다”고 항변했다.

주 52시간 근무 체제로 주말 훈련을 부탁할 경우 지도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등도 따로 지급해야만 한다. 학부모들이 각축해 감독, 코치 월급을주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탁구 신동’으로 불리는 신유빈(17)의 경우 고교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실업팀으로 직행했다.

혁신위 권고처럼 된다면 개인 종목에서는 신유빈과 같은 선택을 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 자명하다.

단체 종목의 경우 사교육을 부추겨 재능이 있는데도 경제 사정 때문에 운동을 중도 포기하는 선수들이 나올 수 있다.

제도적으로 학생선수라는 본분을 지킬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교과 과정에서 체육 교육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빈약한 시설 등의 이유로 스포츠 클럽 활동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학생선수에게 무조건 학습권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클럽 활동 활성화라는 대안 또한 한국 입시 현실에서 체육 활동이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등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관련 제도를 서둘러 고치면 빈틈이 많이 생긴다.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다시 제도를 고치다 보면 결국에는 이도 저도 아닌 누더기 제도가 되고 만다.

그 와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꿈을 좇아 운동을 택한 아이들이 될 것이다.

앉아서 하는 공부만이 학습일 수는 없다.

학생선수에게 운동은 꿈을 향해 가는 또 다른 학습이다.

학생선수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등이 마련된 뒤 제도를 고쳐도 늦지는 않다.

질문 1. 「학생선수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등이 마련된 뒤 제도를 고쳐도 늦지 않다」에서 말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답 :

(2021. 12. 14. 화) 작가는 무엇으로 사는가(한겨레)

“애야, 네가 뭔지 모를 그런 작업을 돈 받아 가면서 한다니, 너는 억세게 운이 좋구나. 남들은 일해야만 먹고사는데 말이다!”

문학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어머니가, 오랜만에 귀향한 작가 아들에게 감탄을 섞어 말한다.

미국 작가 토머스 울프의 자전적 에세이 <무명작가의 첫 책>에 나오는 일화다.

이 어머니의 생각에 작가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글쓰기는 ‘일’의 축에 들지 못한다.

그런 어머니에게 울프는 글쓰기 역시 노동이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작가는 단연코 노동자”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생각을 바꾸었을 것 같지는 않다.

“작가가 좋아. 방에 틀어박혀 착실하게 일할 수 있고, 남들 앞에 나가지 않으니 주위에서 신비한 일을 한다고 착각해줄지도 몰라.

힘도 들지 않아.

땀별에 땀 흘릴 일도 없어.

찬바람을 맞을 일도 없어, 만원 전철에 타지 않아도 되지.

베스트셀러를 쓰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도 꿀 수 있고, 선생님이라 불리면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일본 작가 아리스가와 아리스의 소설집 <작가 소설>에 실린 단편 ‘기코쓰 선생’에서 소설가인 기코쓰 선생이 자신을 찾아온 문학 지망 고교생에게 하는 말이다.

선생의 말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학생이 문학에 대해 품고 있을 환상을 깨뜨리고자 반어적으로 들려주는 설명이지만, 실제로 작가의 삶에 관해 이런 식의 환상을 품은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울프 어머니의 생각과 기코쓰 선생의 설명에서 공통된 것은 무엇일까.

몸과 힘을 쓰는 육체노동이든 직장에서 눈치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 가며 하는 사무 노동이든 일반적으로 노동으로 간주되는 것과 작가가 하는 일은 다르다는 것, 작가가 하는 일이란 한마디로 ‘일 같지 않은 일’이라는 인식이 그것일 테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작가의 일이란 누구의 지시나 압박도 받지 않고,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글을 받아 적기만 하면 되는 ‘신선놀음’인가.

그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작가가 하는 일이란 다른 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지니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수월하고 우아하며 노동 강도가 약한 것은 결코 아니다.

작가의 일, 그러니까 글쓰기가 어느 노동과 다르지 않은 고강도의 노동이라는 사실은 울프를 비롯해 숱한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바다.

미국 작가 제임스 미치너의 소설 <소설>에 등장하는 소설가 루카스 요더의 토로를 들어 보자.

“어떤 때는 글쓰는 일이 마치 무슨 지고한 영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 웃기지 말라고 말해 주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했다.

정말 글쓰기란 고된 노동인 것이다.”

영감의 도움을 받아 글이 술술 풀리는 순간이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잡히지 않는 영감을 잡고 고자 갖은 몸부림을 다하는 것이 글쓰기의 일반적인 형태임은 이 칼럼의 지난 회 ‘마감’ 편에서 확인했을 테다.

게다가 글쓰기가 예술작품의 창작을 위한 고투일 뿐만 아니라 밥벌이로서의 성격 역시 아울러 지닌다는 사실은 사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 글 앞머리에서 언급한 <무명작가의 첫 책>에서 다시 한 대목을 인용해 보자.

“내가 끊임없이 써왔다면 그것은 먹고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부양해야 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또한 진실로 말할 수 있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 어떤 단어, 어떤 문장, 어떤 문단도 오로지 돈만을 목적으로 쓴 적은 없었다고.”

울프는 글쓰기와 문학에 관한 자신의 연결성을 방증하고자 자신이 할리우드에서 온 제안을 거부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한다.

동시대 유명 작가였던 스콧 피츠제럴드가 할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로 상업적 성공을 누렸던 사실과 대비되는 모습이라 하겠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시인 김수영은 울프와는 사뭇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마리서사’ 라는 산문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지난 1년 동안에만 하더라도 나의 산문 행위는 모두가 원고료를 벌기 위한 매문·매명 행위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다.

진정한 ‘나’ 의 생활로부터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나의 머리는 출판사와 잡지사에서 받을 원고료의 금액에서 헤어날 사이가 없다.”

울프가 순결한 작가인 반면 김수영은 돈이나 밝히는 속물적인 글쟁이인 것일까.

설마 그렇게 단순하게 사태를 이해하는 독자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네 삶의 많은 것들이 그러하듯, 창작으로서의 글쓰기와 생계유지를 위한 글쓰기의 경계는 사실 그렇게 분명한 것이 아니다.

국경을 이루는 강물처럼 양자는 뚜렷한 경계선 없이 유연하게 넘나든다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앞서 인용한 김수영의 산문 ‘마리서사’ 만 하더라도 그 글은 쓰인 지 반세기가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예술과 삶의 관계에 관해 통찰과 가르침을 주는 바가 적지 않다.

독자로서 우리는 오히려 김수영으로 하여금 이런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한 ‘매문·매명’의 상황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학과 문인들이 일반적으로 가난과 친숙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직업으로서의 문학’ 이 상대적으로 유망하다는 주장이 없지는 않다.

<작가의 수지>라는 책을 쓴 일본 작가 모리 히로시가 대표적이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데뷔 19년차인 2015년 현재 90권 가량의 소설을 포함해 278권의 책을 냈고 총 판매부수 1400만부에 15억엔의 수익을 올렸노라고 밝힌다.

이런 수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가 소설가라는 직업을 “의외로 장래성이 있는 분야” 라고 소개하는 대목이다.

“인건비가 들지 않아 불황에 강하다는 점, 자본과 설비가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비교적 단 시간에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등의 유리한 조건” 을 드는 데에서 짐작하듯, 그는 철저하게 사업의 측면에서 글쓰기와 문학에 접근한다.

문학을 ‘사업’ 으로 대하는 태도는 영국 작가 조지 기싱의 소설 <뉴 그룹 스트리트>의 주인공 재스퍼 밀베인을 떠오르게도 한다.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문학이 문학의 전형과는 거리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작가들이 오로지 사업과 생계만을 위해 글을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업과 생계의 측면을 등한시하거나 그에 무지하고 무능하다 보니 작가들은 대체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더 나아가, 가난을 문학의 필연적인 동반자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동양의 문학 이론에 나오는 '시궁이후공' (詩窮而後工)이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시는 가난해진 뒤에 더 좋아진다는 뜻으로, 중국 송대의 시인 구양수가 처음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아, 점필재 김종직 같은 이는 “넉넉한 도량과 높은 천성”을 지닌 “공후와 귀인들 중에 문장을 잘하는 사람이 어찌 적겠는가?”라며 맞서기도 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작가는 가난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가혹하다.

자칫 문학 지망생들의 의욕을 꺾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작가들이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뉴 그룹 스트리트>나 ‘명동 백작’ 이봉구의 에세이에 등장하는 문인들이 대체로 가난에 허덕이는 것은 객관적인 사태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한다.

발자크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들이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느라 초인적인 생산력을 발휘해 가며 글을 썼다는 일화는 작품 창작에 가난이 기여하는 몫이 분명히 있다는 방증으로도 보인다.



작가들의 수입원은 사실 뻔하다면 뻔하다.

시나 소설 또는 ‘잡문’이라 불리는 산문을 발표해서 받는 원고료, 그 글들을 책으로 묶어 낼 때 받는 인세, 간헐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문학상 상금과 창작 지원금, 도서관이나 학교 등에서 주관하는 초청 강연의 사례비, 신춘문예나 문학상의 심사를 해서 받는 심사료 등이 대종을 이룬다.

이 가운데 강연은 독자들과 만나자신의 작품을 알리는 기회가 되는데다 일정한 보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가들의 생계에 적잖은 도움을 준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작가들의 강연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

그렇잖아도 궁색한 작가들의 처지가 더욱 오그라들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로 묶인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누구보다 고대하는 이들이 아마도 작가들이 아닐까.

(2021. 12. 15. 수) 북한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중앙일보)

1996년 6월의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패닉 분위기였다.

공산당 후보인 겐나디 주가노프가 당시 러시아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을 꺾고 당선될 가능성이 커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사회주의로 회귀하고 국제질서는 다시 냉전으로 돌아갈 것이 우려됐다.

사실 모든 지표에 따르면 주가노프의 승리가 확실해 보였다.

소련 해체 후 1995년까지 러시아의 국민소득은 40%나 줄었다.

소득 불평등은 현저히 악화돼 소련 말기 북유럽 수준이었던 지니계수(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지수)는 1990년대 중반 남미 수준으로 급등했다.

더욱이 공산당은 대선 1년 전에 열렸던 총선에서 압도적인 제1당이 되었다.

상당수 미국 지식인들은 역사적 종언을 고했다던 사회주의가 러시아에서 재탄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바로 시장이 몰고 온 밑바닥 혁명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 초 모스크바에서의 현지 연구가 끝나갈 무렵, 필자는 아들에게 선물할 러시아제 장난감을 찾아다녔다.

여러 곳을 허탕 치고 들른 곳이 '젯스키 미르' 라는 아동용품 백화점이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은 한 층만 제외하고 모두 텅 비어 있었다.

그 층의 중간엔 거대한 유리 곱 안에 값진 제품이 전시된 듯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다.

틈을 헤집고 가까이가 보니 허탈하게도 남녀 아동용 수입 신발 1켤레씩이었다.

그러나 평생 본 적이 없는 채색신발의 아름다움에 러시아 부모들의 강렬한 눈빛이 내려 꽂혔다.

그곳은 단지 제품 전시장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충성을 맹세하는 공간이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저렇게 예쁜 신발을 사주고야 말겠다는 결단의 현상이었다.

그렇게 러시아인 마음 깊이 사회주의는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해체되고 있었다.

결국 옐친은 주가노프를 꺾고 러시아 2대 대통령이 되었다.

북한 주민은 70% 이상의 소득을 시장에서 벌고 식량과 소비재의 60% 이상을 시장에서 구입한다.

시장은 부유해질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돈을 벌 욕구를 유발한다.

시장이 커지고 새로운 물건이 등장하면 돈을 벌어야 할 이유와 동기도 더 강해진다.

그럴수록 돈을 벌고 쓸 자유를 주는 체제를 지지하게 된다.

이처럼 소비 욕구와 시장 활동은 상승작용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이는 정치와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대다수 북한주민은 겉으론 사회주의자이지만 마음으로는 자본주의에 충성하고 있다.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은 탈북 후 남한 정착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탈북민을 해마다 설문조사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자본주의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8%인 반면 사회주의 지지자는 16%에 불과했다.

사회주의 가치관은 시장을 만나면 바람 빠진 풍선이 된다.

서울대의 이정민, 최승주 교수와 필자, 그리고 컬럼비아대의 이석배 교수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탈북민은 남한 출신 주민보다 훨씬 평등 지향적이지만 유독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다.

바로 북한에 거주할 때 시장 활동을 했던 탈북민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모은 돈을 나눠 갖게 하는 경제학 실험에서 남한출신 주민처럼 자기 몫을 확실히 챙겼다.

시장 활동이 집단주의 가치관을 부식하고 개인주의와 사적 소유의식을 키운다는 뜻이다. 동시에 시장은 인간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결과가 성공적이면 부자가 되지만 실패하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시장은 이처럼 수동적 인간을 능동적 주체로 변모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을 허물고 있다.

시장 혁명의 원조는 중세가 근대로 이행할 때의 상업혁명이었다.

당시 학자들은 상업의 발달이 가져올 미래 사회에 관해선 논쟁을 벌였지만 기존 질서가 해체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몽테스키외와 애덤 스미스는 상업이 초래하는 정신과 사회의 변화에 주목했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상업은 지식을 침투시켜 구성원 간 소통을 촉진하며 사회에 분별과 질서라는 '온화한 습속'을 낳는다.

애덤 스미스도 상업은 절제의 덕을 키우며 독립심을 고양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유럽에서 상업이 발달한 정도와 국민의 도덕심이 비례한다는 점을 들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기에 시작됐던 북한 시장화는 김정은의 시장 통제로 두 번째 위기에 직면했다.

첫 번째 위기는 김정일이 시장 억압 정책을 펼 때였다.

그러나 2009년 화폐개혁으로 정점에 이르렀던 이 정책의 결과 시장이 대승했고 김정일은 대패했다.

이 때문인지 김정은은 처음엔 시장을 억압하지 않고 이용하려 했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시장 통제로 돌아섰다.

하노이 회담 결과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은 전략적 후퇴인지, 아니면 시장화가 초래하는 변화를 두려워한 나머지 사회주의로 돌아가려는 시도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후자는 실패한다는 점이다.

스탈린은 2000만 명을 희생하면서 시장사회주의를 뒤엎고 사회주의로 복귀했지만 지금 김정은 에겐 그럴 힘이 없다.

김정은이 아니라 시장이 북한의 대세다.

그도 이 조용한 혁명의 한 행위자일 뿐이다.

질문 2. 「그도 이 조용한 혁명의 한 행위자일 뿐이다」에서 「그」는 다음 중 누구일까요?

- ① 김정은 ② 스탈린 ③ 애덤 스미스 ④ 김정일 ⑤ 시장

답 : ()

질문 3. 온화한 습속의 뜻은?

답 : _____

질문 4.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은 어떻게 허물어지나요?

답 : _____

(2021. 12. 16. 목) 리어왕의 세 가지 교훈(조선일보)

셰익스피어의 이른바 4대 비극(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가운데 하나인 '리어왕'은 비극이기 이전에 한 편의 인생 교과서요, 리더십 교본이다.

고전적으로 보자면 선악과 배신이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현대적으로, 아니 세속적으로 보자면 리어왕의 제1 교훈은 “선불리 미리 나누지 말라!”는 것이리라.

사실 리어왕 비극의 단초는 무작정 미리 나눠 준 데 있었다.

부와 영토와 권력을 모두 가져 부러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리어왕이 세 딸(고너릴, 리건, 코델리아)에게 나라를 '미리' 나눠 준 후 본인은 편안한 노후를 즐기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계획과 판단을 했다지만, 정작 그것이 자신은 물론 자식을 모두 죽이고 나라마저 결판나게 만드는 파탄의 씨앗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416년 전 셰익스피어 희곡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더구나 한 집안, 한 기업, 한 국가의 상속에 관한 일에 국한될 이야기도 아니다.

옛그제 국민의힘 선대위출범식 무대를 보면서 연극 리어왕의 무대가 오버랩 되었다고 말하면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른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이준석 두 상임선대위원장에게 각각 빨간 목도리를 돌려줄 때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솔직히 정작 권력의 분깃을 나눠 주는 리어왕이 대선 후보 윤석열인지 킹메이커라고 하는 김종인인지가 다소 헷갈렸지만 말이다.

리어왕의 제2 교훈은 “듣기 좋은 말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리어왕은 세 딸에게 자신의 왕국을 나눠 줄 터이니 각자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듯 말해보라고 주문하지 않았다.

그 고백 강도에 따라 부와 영토를 더 나눠 주겠노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자 첫째 딸 고너릴은 “아버지를 우주보다, 목숨보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한다”고 말했고, 둘째 딸 리건은 한술 더 떠서 “언니의 말에 부족한 부분을 느낀다”며 “세상 그 어떤 즐거움도 아버지를 향한 마음보다 즐거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정말이지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지만 진짜 말로 다해버린 셈이다.

하지만 셋째 딸 코델리아는 “아버지를 극진하게 사랑한다는 것이야 마땅히 딸로서 해야 할 도리인데 이를 어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리어왕은 기대했던 답이 돌아오지 않자 격노하며 “저 애는 오만함을 정직함이라고 부르나 본데 막내딸에게 주려던 권력과 재산은 앞의 두 딸에게 넘겨줄 테니 너는 오만함과 결혼하라”며 저주하고 힐난했다.

가식과 위장으로 넘쳐 난 첫째와 둘째 딸의 감언이설에 취해 나라를 송두리째 넘기고 정작 가장 사랑하던 딸에게 가장 극심한 주저를 퍼부은 리어왕은 불행과 불운을 자초하고 만다.

작금의 현실에서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100명중 60명이라면 그중에서 20명 정도는 마치 셋째 딸 코델리아 같은 이들이라.

코델리아가 왕에 대한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품고 있으면서도 노골적으로 표하지 않는 것처럼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은 간절하지만 정작 그것을 보수 후보를 향해 표시하지 않는 이가 열추 20%다.

이들을 끌어안아야 정권 교체도 가능해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리어왕의 제3 교훈은 “막연히 호의를 기대하지 말고, 집행권과 왕관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맡기지 말라!” 는 것이다. 리어왕은 고너릴과 리건 두 딸이 마련해줄 기사 100명을 거느리고 매달 번갈아가며 두 딸의 성에 머무르기를 기대했다.

더구나 왕의 칭호와 보좌는 리어왕 자신이 갖고 있으되, 그 밖의 집행권은 두 딸에게 넘겨주고 그 증거로 자신의 왕관을 주어 번갈아 사용하도록 까지 했다.

이에 리어왕을 보필해온 충신 켄트 백작이 그 뜻을 거두시라 했지만 리어왕은 “활시위는 이미 당겨졌다. 과녁을 피해 서시오!” 라고 말할 뿐이었다.

켄트 백작이 물러서지 않고 “차라리 저를 쏘아주십시오” 하며 왕이 뜻을 거두길 충심으로 건의하자 리어왕은 끝내 켄트를 추방하고 말았다.

하지만 결국 리어왕에게 돌아온 현실은 두 딸의 박절한 응대와 광야로 내몰리는 일 아니었는가.

사실 이번 대선은 정말이지 희한한 선거다.

여당과 제1 야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역대 가장 높은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망이 훨씬 크다.

그래서 그럴까.

아직 밥은 커녕 불도 붙이지 않은 생쌀 담은 솥에 이 사람, 저 사람 꽃은 손가락이 뻑뻑하게 꽃혀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권력은 나눠야 커진다는 말도 있지만 크든 작든 권력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아직 잡히지도 않은 권력을 입도선매하는 일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망은 오직 하나!

일단 정권을 되찾아만 오라는 것이다.

그 후의 문제는 다시 그때 가서 보자는 절박하면서도 착잡한 마음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대다수 사람의 솔직한 심정이리라!

(2021.12.17.금) 25년 내 대학 절반 소멸(동아일보)

대학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24년 전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30년 후 대학 캠퍼스는 역사적 유물이 될 것” 이라고 예언했고,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것” 이라고 내다봤다.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라는 뜻에서 던진 충격 발언이었는데 국내에선 실제로 25년 내 대학의 절반이 소멸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일 주최한 ‘미래전망 전문가 포럼’ 에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2042~2046년 국내 대학 수가 190개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현재 대학이 385개이니 25년 후엔 절반만 남게 되는 셈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학 생존율이 75% 이상인 곳은 서울(81.5%)과 세종(75%)뿐이다.

경남(21.7%) 울산(20%)전남(19%)은 5개 중 4개가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입시부터 학생 수가 입학 정원을 밑돌면서 지방대들은 소멸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지방 수재들이 가던 국립대 수학과를 수학 8등급 학생이 가고, 지원자 전원이 합격하는 학과들도 속출했다.

속이 타는 대학들은 ‘원서만 내면 100% 합격’ 이라고 모집 공고를 내거나 ‘1년 학비 면제+토익 수강비 지원’ 같은 유인책을 제시한다.

성과와 무관하게 들어온 학생들에게 고교 수학 과학을 가르치려고 사교육 업체와 계약을 맺는 대학도 있다.

대학의 소멸은 지역 경제의 위기다.

대학생 1명의 월 경제유발 효과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

2018년 서남대 폐교 전후 6년간 전북 남원시의 연간 소득 감소액은 260억~344억 원으로 추산된다.

2017년 남원시총예산의 4.5~6%다.

2010년부터 8년 연속 부실 대학 지정으로 학생 수가 꾸준히 줄지 않았다면 폐교의 충격은 더했을 것이다(국토지리학회지 논문).

가야대와 단국대 캠퍼스가 2003년과 2007년 빠져나간 후 경북고령군과 서울 용산구의 서비스업 고용은 약 6% 줄었다(KDI 보고서).

대학이 지역 문화의 구심점임을 감안하면 폐교로 지역 사회가 입는 손실은 더욱 커진다.

학생 수 급감이 아니라도 지금의 교육 방식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래학자프레이는 “앞으로는 평생 10개 직업을 바꿔가며 일하게 될 것” 이라며 평생교육 수요에 대비하라고 제안했다.

코로나로 미국을 포함해 대부분 나라에서 유학생이 줄어든 데 비해 한국은 한류 덕에 올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2만 명으로 2019년보다 19.8% 늘었다.

공간적 시간적으로 시야를 넓혀 새로운 교육 수요를 찾아내는 것이 대학 소멸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질문 5. 이 글에서 대학 소멸을 막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답 :

₩보너스 읽기₩ DNA조각 증폭기술 덕에 코로나 잡아내죠(매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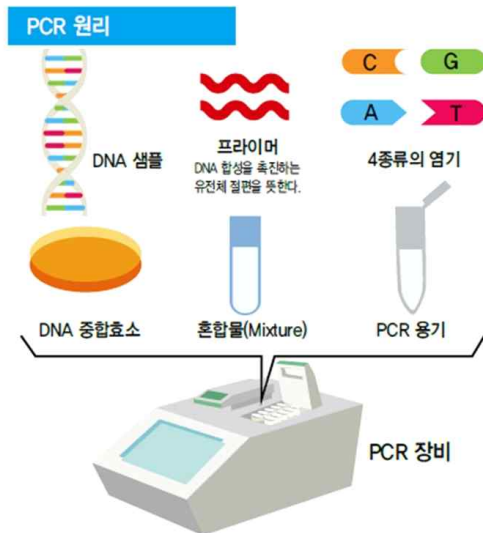
바이러스, 양성, 임상...

지금처럼 비전공자가 생물학 용어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을까 싶다.

1년 반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얻은 것이 있다면 신문 기사에서 반복돼 쏟아지는 전문 용어가 이미 많은 이에게 상식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감염병 분야에 지식이 쌓여 어느 정도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코로나 검사에 사용되는 방법인 'PCR', 이 역시 생물에는 관심이 없던 이들조차 기억하는 단어가 되었다.

■Q. PCR는 무엇인가요?



A. PCR는 Polymerase chain reaction(중합효소 연쇄반응)의 약어로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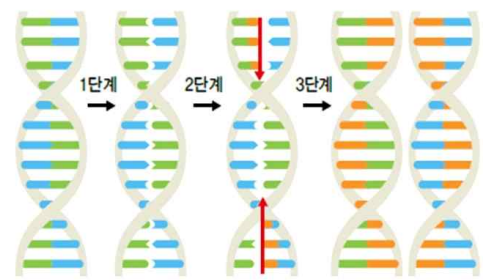
증폭이라는 말 그대로 원하는 유전자 정보를 복제해 늘리는 것이다.

이 방법은 1984년 미국 생화학자 캐리 멀리스(1944~2019)가 고안해 다음 해인 1985년 공식 발표된 분자생물학 기술이다.

유전자 정보가 유용한 연구 주제가 되며 많은 사람이 원하는 유전자를 분리해내고자 할 때 그는 반대로 원하는 DNA 조각을 증폭시켜 그 숫자를 늘어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기술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1993년 노벨화학상 수상이 아닌 같은 해 개봉한 영화 '쥬라기공원'에서 호박 속 갇힌 모기의 피에서 찾아낸 공룡의 유전자를 증폭시킨 장면 때문이다.

PCR는 3단계로 온도를 올리고 내리면서 필요한 DNA 가닥을 두 배씩 늘려준다.
1단계: 온도를 96도 정도로 높여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끊는다.
2단계: 온도를 54도 정도로 낮춘다. 그러면 DNA 가닥 중 증폭이 필요한 부분에 결합하도록 미리 설계된 시발체 즉 프라이머(Primer)가 가서 달라붙는다.



3단계: 염기염색을 넣고 온도를 다시 74도 정도로 올린다. 원본 DNA 중 프라이머가 붙은 끝자리에서부터 염색 속 중합효소가 내 가지 염기(A, T, G, C)를 붙이면서 DNA 가닥을 복제한다. 이 과정을 반복할 때마다 DNA 가닥은 두 배씩 증폭된다.

■Q. PCR 반응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A. PCR는 DNA의 양이 아주 적어도 원하는 특정 부분을 수십만 배 이상 증폭할 수 있고 증폭도 2~3시간 정도로 짧다.

PCR에는 유전자(주형·template)와 목표로 하는 유전자를 검색해 낼 수 있는 프라이머(Primer), 프라이머가 붙은 위치에서 염기서열을 생성하기 위한 염기(nucleotide) 반응을 도와줄 DNA 중합효소가 필요하다.

(Denaturation)시키는 것이다.

PCR는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단계는 주형인 DNA를 변성

두 가닥의 결합으로 이뤄진 나선형의 DNA는 높은 열에 의해 각각 분리되며 분리된 각각의 DNA는 반응을 위한 주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결합(Annealing)이다.

목표 유전자의 서열을 바탕으로 그 유전자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준비된 프라이머가 유전자에 붙는다.

프라이머는 특정 유전자를 검색해내기 위한 서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검사에서는 국가별 다양한 프라이머가 사용되는데 각 국가에서 제시한 목표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신장(Elongation)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DNA 중합효소가 프라이머가 위치한 주형 DNA 부분에 작용해 염기를 붙여 새로운 DNA를 만들게 된다.

■Q. PCR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PCR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RT-PCR는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ion)를 이용한 '역전사 PCR'의 약자로 RNA를 DNA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추가된 PCR다.

DNA가 유전정보라면 RNA는 유전자가 얼마나 발현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PCR로는 발현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코로나 검사를 위한 PCR에서는 검체(목과 코에서 얻은 시료)에서 RNA를 추출해 DNA로 합성한 뒤 PCR에 이용된다.

이때 코로나19의 원인이 되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유전자가 증폭되면 바이러스 RNA가 있다는 뜻이므로 '양성'으로 판정되고 바이러스가 없다면 프라이머가 붙을 수 있는 위치가 없어 증폭되지 않는다.

실시간 역전사 PCR(real-time RT-PCR)는 RT-PCR에 의한 증폭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법이다.

변성-결합-신장의 단계를 거쳐 늘어난 두 가닥의 유전자에 형광물질이 붙도록 해 PCR 반응 동안 형광량의 증가를 확인한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 적용된 방법이다.

■Q. PCR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A. 특정 질병에 의해 나타나는 유전자 정보를 통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BCR-ABL은 염색체의 전좌에 의해 생기는 키메라 유전자로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에 사용된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간 역전사 PCR를 이용해 숲 모기의 RNA에서 지카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하기도 한다.

범죄 현장에서도 PCR는 유용하게 이용되는데 세포가 묻은 모든 검체는 범인을 추적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반면, 시료 내 DNA의 양이 상당히 적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소량의 DNA 시료에서 특정 염기서열을 증폭시켜 이를 프로파일과 비교·분석해 용의자를 좁힌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PCR가 해결했다.

고고학에서는 고인골이나 유적지에서 채집된 다양한 시료에서 DNA를 추출해 고대 인류의 계통이나 생활사를 복원하고 있다.

생태학 분야에서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정 유전자를 확인해 이들의 다양성 조사에 활용하는데, 미생물학이나 미생물생태학 분야에서 종마다 가지고 있는 특이적인 유전자 서열을 이용해 종의 다양성을 연구하기도 하고 특이한 기능을 하는 유전자의 정보를 찾아 미생물의 기능을 확인하고 있다.

키보드에서 RNA와 DNA를 빨리 입력하려다가 실수를 하면 '꿈' 또는 '몽(夢·꿈)'이란 글자가 써진다.

PCR가 없었다면 이렇게 방대한 유전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지도 또 활용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PCR는 꿈을 꿈이 아니게 해준 20세기 후반 최고의 생명과학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